

## <九歌>에 나타난 君臣遇合\*

— <湘君>을 중심으로 —

류 명 희\*\*

### <目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1. 男女相戀으로 접근한 君臣遇合 |
| II. 崑원의 생애와 美政理想    | 2. 향초로 접근한 君臣遇合    |
| 1. 생애               | 3. 靈巫儀式으로 접근한 君臣遇合 |
| 2. 美政理想             | IV. 결론             |
| III. <湘君>에 나타난 君臣遇合 |                    |

### I. 문제의 제기

崑원은 왜 그토록 성군과 현신의 만남(君臣遇合)을 열망했을까? 그는 <이소>에서 그 답을 밝혀주고 있다.

余既不難夫離別兮, 나는 이별하기야 어렵지 않지만,  
傷靈修之數化. 靈修의 잦은 변덕은 가슴이 아팠다

豈余身之憚殃兮, 어찌 이 몸에게 내리는 재앙을 두려워하겠는가,  
恐皇輿之敗績. 내가 겁내는 것은 조국이 이로 인해 전복되는 것이  
로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그는 楚의 先賢인 吳起가 변법을 실현하는 도중에 그의 주군인 悼王의 죽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고, 굴원과 동일 시대를 살았던 秦의 商鞅 역시 그가 추진했던 변법의 운명이 주군인 孝公의 죽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실을 목도하였다. 지금은 본인 역시도 楚國의 舊習을 혁신하고자 國事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빌미가 되어, 오히려 수구세력의 참언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를 신임하고 지지했던 主君(懷王)마저 그로부터 등을 돌렸다.<sup>1)</sup> 그 결과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변혁의 꿈도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그의 조국 楚에서 美政이 실현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추방을 당하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결국은 ‘군신우합’의 실패로 인해 그의 꿈도 수포로 돌아가고 조국의 운명도 함께 침몰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sup>2)</sup>

이와 같이 그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君臣’이 동일한 법도와 기준을 가지고 만나서 화합하게 되면 功業을 이룩하게 되나 ‘우합’이 실패로 돌아가면, 功業도 사라지고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게 된다는 역사적 현

1) 司馬遷 《史記·屈原賈生列傳》(西安: 三秦出版社, 1988): “上官大夫與之同列, 爭寵而心害其能, 懷王使屈原造爲憲令, 屈原屬草稿未定. 上官大夫見而欲奪之, 屈原不與, 因讒之曰: ‘王使屈原爲令, 衆莫不知, 每一令出, 平伐其功, 以爲‘非我莫能爲’也’ 王怒而疏屈原.”(상관대부는 굴원과 직위가 相等하여, 懷王의 총애를 쟁탈하기 위해, 굴원의 재능을 질투했다. 한 번은 회왕이 굴평으로 하여금 憲令을 초안하도록 하였는데, 굴평이 초고를 아직 마치지지도 않았는데, 상관대부가 보고니서는 이를 고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음에, 그를 참언하여 가로되: “왕께서 굴평으로 하여금 憲令을 만들게 하시자, 사람들이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굴평)은 매번 憲令을 만들어 낼 때마다, 그 공을 내세워” 즉 ‘내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여긴다며 지껄여 대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노여워서 굴평을 멀리하게 되었다.)

2) 王逸의 <九章·惜往日>《楚辭章句》(商務印書館, 1937)에서는 바로 “선왕(회왕)의 공업을 받들어 후세에 두루 비추고, 법령중의 모호한 부분은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밝히고자 하였네. 奉先功以照下兮, 明法度之嫌疑.” 그리하여 前賢의 역사경험을 통해, 일찌감치 시인은 “군신 쌍방 간에 서로 이득이 되는 君臣相得” 중요성을 말하고, 「君臣遇合」이 개인의 榮辱에 관계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변혁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가 됨을 말하고 있다.

실을 그의 문학 작품 속에서 예술형식으로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 역량보다는 시인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이소>는 정치서정시로 세인의 사랑을 크게 받았으며 기타 작품들도 전반적으로 그의 정치생애와 정치사상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는 巫歌 계열로 묶여져 있는 九歌도 “위로는 신을 섬기는 공경함을 진술하고 아래로는 자신의 원한 맺힘을 나타내어 그것에 기탁하여 풍간하였다.”<sup>3)</sup>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사실 <湘君>과 <湘夫人>의 경우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경계를 구축한 迎神歌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텍스트로 하여 이의 무적세계를 一考한 소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다.<sup>4)</sup>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부터 巫歌로 알려져 있는 <湘君>과 <湘夫人>을 두고 과연 이를 순수 무가로만 볼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고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楊采華가 쓴 《屈原及其辭賦新解》에서 <湘君>과 <湘夫人>은 남방 夷越地區의 祭神曲인데, 굴원이 이 제신곡의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내용을 부여한 것이다.<sup>5)</sup>라는 견해를 보고 본 텍스트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보고자 초국의 문화를 다시 한 번 살피게 되었다. 이미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 당시의 초국이 神巫가 합일한 政教一致의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았다. 그래서 본 텍스트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主巫의 험난한 迎神의 노정과 神巫交接의 추구를 실패로 설정한 데는 굴원의 底意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듭 숙고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또 熊良智가 쓴 《楚文化研究》(중국: 巴蜀書社, 2002)를 보면서 정치상에서의 군신우합의 승패를 본 텍스트에서 주무의 迎神에 대한 실패와 연결시켜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정치 서정시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해보기 위해, 굴원의 생애와 정치사상을 개괄해서, 굴원의 정치의식에 대한 전반을 재검토 한 다음, 그가 추구했던 ‘君臣遇合’의 정치도식이 巫歌로 주

3) 王逸의 <九歌序>: “上陳事神之敬, 下以見己之冤結, 託之以諷諫.”

4) 줄고, <<湘君>과 <湘夫人>을 통해 본 巫의 세계>, 《中國語文學》 제50집.

5) 楊采華, 《屈原及其辭賦新解》(武昌: 武漢大學出版社, 1994년), 216쪽.

지하고 있는 <상군>에서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시험삼아 一考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군>의 줄거리가 되고 있는 迎神의 路程을 神巫交接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군신우합과 같은 등식으로 전제하여, 합리적인 분석을 기하기 위해, 4가지 단계, 즉 (1) 男女相戀으로 접근한 군신우합 (2) 향초로 접근한 군신우합 (3) 貞女の 丹心으로 접근한 군신우합 (4) 靈巫儀式으로 접근한 군신우합이라는 항목으로 소절을 두어, 이를 주요테마로 하여, 巫歌라는 특수형식 속에 함축시킨 정치도식을 이끌어 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로써, 神巫合一의 巫史문화 속에 부각되고 있는 초국의 정치유형의 일단을 이해하는데 한 발자국 다가서 보고자 한다.

## II. 굴원의 생애와 美政理想

굴원은 중국 역사상 위대한 시인이며 당시 楚國의 중요한 혁신 정치가였다. 그의 정치사상이 전국시대 진보주의자의 법치사상에 기준을 두었던 만큼 變法에 의해 초국을 쇄신하여 富國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의 정치이상이었다. 그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수구세력의 저항을 받아 그의 정치생애는 불운의 연속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장에서 그의 이러한 정치생애를 개괄해보고, 이어서 그를 불행한 정치인으로 몰고 갔던 그의 정치이상과 사상을 먼저 이해하여 보기로 한다.

### 1. 생애

屈原은 이름은 平이고, 字는 原이며, 어떤 사람은 또한 <離騷>의 견해에 의거하여, 그를 正則이며 靈均이라고도 칭한다. 그의 生卒의 年·月에 관하여는 史書 상에 그다지 명확한 기재가 없다. 학자들의 추산에 의거하면, 그는 대략 楚 威王 元年(기원전 339)에 출생했으며, 楚 頃襄王 21년

(기원전 278)전후에 세상을 떠났다.

굴원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楚國이 강성에서 쇠락으로 전환되는 전국시대 후기에 해당한다. 시대의 격동에 따라 굴원이 젊었을 때 그가 품었던 혁신의 꿈과 적극적인 조정에서의 참여 등으로 인해 반대파의 참언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으며; 중년 시대에는 황야를 떠돌았고; 최후의 시기엔 滄羅江에 몸을 던져 순국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그는 그의 일생을 그의 조국과 그의 인민을 위해, 조금도 남김없이 희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굴원의 遠祖는 상고시대 五帝의 한 사람이었던 顓頊 高陽氏라고 한다. 전욱의 후예 중에 이름은 季連이고 성은 畢로서, 그는 바로 楚人의 시조이다. 계련의 후대는 鬻熊이며, 그는 일찍이 周 文王을 섬겼고, 그러자 그의 후대는 熊으로 바꾸어 성을 삼았다.

춘추시기에는 楚 武王 응은 分封을 통해, 그의 아들 珂를 屈地에 살게 하였으며, 그의 자손은 또 이 封地를 따라서 성씨로 삼았다. 고로 실제상에서 屈姓은 단지 楚 왕족에서 나누어진 씨족인 셈이다. 당시에 초국에는 昭景屈의 三大姓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遠祖가 동일한 가족계통에 속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은 모두 楚 왕족의 성원이다. 굴원의 조상 중에는 고관이나 공적이 혁혁한 자가 적지 않았다. 말하자면, 굴원의 가족과 초국과의 관계는 동고동락하는 혈육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굴원은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문화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즐겼으며, 특히 지식의 누적과 품덕의 수양에 중점을 두었다. 司馬遷의 《史記》에는 그를 “널리 들어서 뜻을 강화시켰고, 治亂에 밝았으며, 辭令에 능했다.”(博聞強志, 明于治亂, 嫻于辭令.)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청년 시대 때부터 조정에 들어가서, 懷王을 보좌하여 초국의 일상 政務를 처리하였다.

《사기》의 기재에 의거하면, 굴원이 맡은 첫 번째 관직은 左徒이다. ‘좌도’란 초국의 重臣으로, 그 지위는 단지 ‘令尹(楚의 宰相)’의 다음 가는 것이다. 나이가 젊었던 굴원은 좌도에 임용되어, 그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초국의 내정과 외교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조정

에 들어가서는 왕과 함께 정사를 논의했다. 그리하여 전국을 號令했으며, 퇴청을 하면 제후국에서 파견해온 使者들을 응대하였다. 그는 일찍이 조정을 위하여 ‘憲令’의 초안을 기안했으며, 또한 齊國에 사자로 나가서, 동맹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로써 그의 충성심과 재간이 회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는 회왕을 통해 국내로는 현자를 천거하고 재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소위 ‘擧賢授能’의 풍토를 확립하여, 국가를 부강시키고 법도가 살아있는 ‘國富法立’의 정치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제나라와 연합해서 진나라에 항거하는 ‘聯齊抗秦’의 정책을 통해, 진나라의 침략을 저지하고 나아가서 중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초국에 上官大夫였던 靳尚을 대표로 하는 관료집단의 모략과 이간으로 회왕의 신임을 잃으면서 그의 정치주장은 좌초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략 회왕 16년 전후에 굴원은 楚國朝廷의 권력핵심으로부터 축출되면서, ‘三閭大夫’라는 직위로 강등 되었다.

‘삼려대부’라는 직무는 초왕과 同姓인 公族子弟의 교육을 관장하는 것으로서, ‘좌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하나의 한직間職이다. 굴원은 비록 이와 같이 降等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였다. 당시 각 제후국들 간에는 빈번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굴원은 재차 제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이로써 파괴된 양국 관계를 재차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근상의 무리들이 조정에서 나날이 그 세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초국은 군사상과 외교상에서 잇달아 좌절과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그 결과 회왕 25년에, 楚 회왕은 秦 昭王과 黃棘(지금의 河南省 境內)에서 맹약을 체결하여, 초국의 외교는 완전히 진나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형세의 압박은 굴원으로 하여금 郢都(초나라 수도)를 떠나서 漢北一帶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후, 초국은 외교상에서 고립되게 되었으며, 國勢 역시 나날이 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회왕 30년에 소왕은 회왕에게 편지를 써서 두 사람이 武關(지금의 陝西省 商南境內)에서 만나, 다시 맹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굴원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여, 조정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진은 맹수의 나라여서, 믿을 수 없으니, 가지 않는 것만 못하다.”(秦虎狼之國, 不可信, 不如毋行.)<sup>6)</sup> 그러나 회왕의 어리석은 아들인 子蘭은 오히려 진왕의 환심을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극력 회왕이 이에 응할 것을 권하였다. 결과 회왕은 진에 들어간 이후, 협박을 받고 咸陽으로 간 이후, 수년 후에 진에서 객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頃襄王 熊이 새로운 1代の 초왕이 되면서, 또 그의 아우인 자란을 令尹으로 임용하였다. 굴원은 이로 인하여 다시 엄중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다시는 ‘군신우합’을 통한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할 기회가 오지 않았다.

굴원은 강남의 황량하고 외진 山野로 추방되면서부터 길고 긴 유랑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략 경양왕 2년 굴원은 장기간 생활해온 郢都를 떠나서 양자강을 따라 東下하였다. 그 후 沅湘一帶를 유랑하였다.

王夫之의 《楚辭通釋》의 추측에 의거하면, 대략 경양왕 21년에 진장군 秦將軍 白起가 초국의 영도를 攻破하였는데, 굴원은 이 소식을 들은 후, 초국에 미래가 없음을 절감한 나머지, 汨羅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왕부지의 이러한 추측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은 굴원이 自盡한 시간을 좀 더 이르다고 확정하거나 혹은 좀 더 늦다고 말하기도 한다.

굴원의 일생은 이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하는 일생이었으며, 수차 참언을 당하였지만 또한 뜻을 굽히지 않음으로서 본인의 인격과 품위를 지키고자 결국은 비극적인 일생으로 끝을 마쳤다.

요컨대, 그는 이렇게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분투했던 애국심의 면면을 聖君과 賢臣이 만나서 결합하는 ‘君臣遇合’이라는 정치유형으로써 그의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시켰다. 이를 테면, 그의 <이소>에서는 성군과의 만남을 현실에서 갈망했으나, 그것이 여의하지 못하자 고대의 역사적 사실

---

6) 사마천 앞의 책 참조.

이나 故事 속에서 이끌어내어 현재의 초국의 쇠망이 바로 이 ‘군신우합’의 이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임을 함축시켜, 그의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그럼 다음 항목에서 그의 생애를 통해 추구했던 미정 이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굴원의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이에 대한 심도를 가늠해 보도록 한다.

## 2. 美政理想

굴원은 전국시대 후반기를 살았던 인물로서 당시 중원의 인본 문화 속의 정치가들과는 달리 남방의 巫史 문화 속에서 진보적인 정치입장을 고수하고자 일생을 분투했던 정치활동가였다. 그러므로 그의 문학의 기초는 단연 그의 정치주장과 철학사상이 강렬하게 반영되어 있다. 하여서 본고의 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져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미정 이상을 5가지 각도, 즉 ① 國富法立 ② 현자천거·재자임용 ③ 봉당금지·상벌규명. ④ 평시농사·戰時전쟁 ⑤ 民本思想 등에서 간략하게나마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는 실제로 전국초기 초나라에 變法을 실시하여 초국을 강국의 반열에 올렸던 오기의 변법을 다시 부활시킨 인물이다. 그러나 오기의 변법이 悼王의 죽음과 함께 좌절되고 말았듯이 굴원 역시 수구세력의 저항을 받아 끝내는 초국을 혁신시키지 못하고 개인의 일생까지도 불운의 연속을 반복하다가 마쳤다. 그의 미정 이상이 어떠한 것이었길래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불사하였을까?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1) 國富法立

당시 전국시대에는 종주국인 주周의 천자가 天下共主의 지위를 잃게 되자, 소위 종주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예의는 붕괴되고 음악은 타락하는 ‘禮崩樂壞’의 이변을 보이면서, 현실의 주요 제후국들은 모두 강국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때 각국은 저마다 강국이 되는 비결을

‘법칙과 제도’를 세우는 데에 두었었다. 이를 테면, 戰國 초기에 魏의 재상 李悝는 《法經》을 편찬하고 솔선하여 위나라에서 變法을 단행하였다. 楚의 吳起는 초나라에서 법률을 개편하였다. 戰國 중기에 商鞅은 秦에서 변법을 실행하였다. 또 韓의 申不害, 趙의 慎到 등도 모두 자국에서 연이어 변법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국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가들로 존존해 있던 노예주 귀족계급의 정치와 경제 통치를 청산하고, 봉건적인 정치 경제제도를 확립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변법을 통해 구 귀족의 정치에 대한 전횡을 타파하고 관료정치로써 귀족정치를 대체하여 국가권력을 봉건군주에게 집중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굴원 또한 시대의 조류를 타고, 전국 초기에 변법을 통해 초의 강성을 추구했던 오기의 뜻을 계승하여, 헌령의 초안을 책임지고 정치변혁운동의 중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憲令’의 내용이 초국의 귀족집단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혁신과 守舊의 대립 속에 그의 정치이상이 좌초하게 되었다.<sup>7)</sup> 그러자 그는 자기의 정치사상이나 철학사상 및 祖國과 인민에 대한 우국애민의 충정을 그의 시편에 녹여 넣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의 정치이상을 표현하여 정치 서정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에 이른다.

이를 테면, <일九章·惜往日>과 <이소> 등에는 초국의 변혁을 염두에 둔 政治綱領과 국가의 부강은 법도(법률과 제도)에 의거해야함을 제시하여 ‘心治’를 반대하고 ‘法度’를 강조하였다. 이는 춘추전국 시기 법가의 주장과 동일한 것<sup>8)</sup>으로, 굴원의 정치이상이 법치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

7) 사마천 앞의 책 참조.

8) 戴望 著《管子校正·版法解》, 《諸子集成》제5冊, (中華書局, 1954년) 340쪽: “若倍法棄令而行怒喜, 禍亂乃生, 相位乃殆.”(만약 법을 어기고 법령을 방치한 채, 노여움과 기쁨을 제멋대로 터뜨린다면, 재난과 변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 位相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錢熙祚校《慎子·君人》, 《諸子集成》제5冊, 6쪽: “君舍法, 而以心裁輕重, 則同功殊賞, 同罪殊罰矣, 怨之所由生矣.”(君이 법을 버리고, 마음으로써 輕重을

여주는 것이며, 또한 당시 초국의 현실이기도 하였다.<sup>9)</sup>

(2) 현자천거·재자임용

여기서 현자의 천거와 재능 있는 자를 임용하는 ‘舉賢授能’이란, 굴원이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다. 《荀子·君子》편에 보면, 聖人을 尊崇하는 사람은 천하를 왕도로써 다스릴 수 있다고 할 만하며, 현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천하를 권력으로써 지배할 수 있다고 할 만 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sup>10)</sup>. 또한 《墨子尙賢》(上)에서도 이러한 이치를 역으로 서술하여, 국가가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며, 기강이 확립되지 못하고 어지러워지는 까닭은 모두 현자를 존중하지 않고 능력자를 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sup>11)</sup>

재단하면, 곧 공로가 동일하여도 상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죄가 동일하여도, 벌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원망하는 것이 이로부터 생기게 된다.)

9) 예시1: <九章·惜往日>

乘騏驎以馳騁兮, 준마를 타고 중횡으로 달려 나가고 싶으나,  
無轡銜而自載. 자신은 오히려 말에 고삐 채우고 입에 재갈 물릴 것을 준비하지 못했도다.

乘汜淪以下流兮, 뗏목에 타고 물길을 따라서 遠航을 하고 싶으나,  
無舟楫而自備. 자신은 정작 또한 배를 저어갈 노를 준비하지 못했도다.

背法度而心洽兮, 법도를 어기고 私的인 의지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辟與此其無異. 곧 이상의 정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예시2: <離騷>

固時俗之工巧兮, 속인은 본시 기회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데  
뛰어나서,

偭規矩而改錯. 법도를 어기고 또한 정책도 바꾸어 버린다네.

背繩墨以追曲兮, 시비의 표준을 벗어나서 邪曲을 추구하고자,

競周容以爲度. 다투어 구차하게 비위 맞추는 것을 법도로 삼는다네.

10) 尊聖者王, 貴賢者霸, 敬賢者存, 慢賢者亡, 古今一也.

11) “子墨子言曰: 今者王公大人爲政于國家者, 皆欲國家之富, 人民之衆, 刑政之治. 然而不得富而得貧, 不得衆而得寡, 不得治而得亂, 則是本失其所欲, 得其所惡, 是其故何也? 子墨子言曰: 是在于王公大人爲政于國家者, 不能以尙賢事能爲政也.”  
(선생인 목자께서 말하여 가로되: 지금 왕공이나 대신 같은 국가의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국가가 부유해지고 인민이 많아지고 형법과 政令(정책과 法令)이 잘 다스려지기 바란다. 그러나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며, 많지

이는 모두 ‘거현수능’의 중요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의 제후들은 다투어서 현자와 능력자를 천거 받고 임용하는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어떠한 신흥의 정치집단이라도 자기의 정치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보증이 되었으며, 또한 진보적 정치집단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굴원 역시도 조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군왕이 열린 마음으로 “거현수능”의 자세를 가질 것을 추구했다. 뿐만 아니라, 춘추전국시대가 대대로 세습되는 卿과 대대로 받는 봉록‘世卿世祿’의 제도를 타파코자 하는 역사적 추세의 구체적인 실현을 그 역시 동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국의 현실은 언제나 왕을 둘러싼 人의 장벽을 깨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었다. 하여서 그는 그의 작품 속에서 고대역사상에 생존했던 성군과 현신의 典範을 찾아 그의 미정이상을 표현하였다. 이를 테면, <이소>에서는 성군이 현신을 기용함에 출신의 성분을 묻지 않고 그가 가진 재능에 중점을 두었던 사례를 열거하는가 하면,<sup>12)</sup> <석왕

못하고 적으며, 다스려지지는 않고 어지러지는 게 보통이니, 곧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바라는 바는 실패하고, 그가 싫어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선생인 목자께서 말씀하여 가로되: 이는 왕공과 대신 같은 국가의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받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하지 못한 데에 있기 때문이다.)(《墨子問詁》, 《諸子集成》 제4冊, 25쪽)

- 12) 湯禹儼而祗敬兮,    탕왕 우왕께서는 태도가 엄숙하시고 (어진이를)공경하셨고,
- 周論道而莫差.       문왕께서는 도리를 논하심에 약간의 과오도 없으셨네.
- 舉賢而授能兮,       그들은 모두 어진 이를 기용하시고 능한 자에게 政事를 맡기셨으며,
- 循繩墨而不頗.       일정한 법도를 좇음에 본모습을 잃지 않으셨네.(약간의 편차도 없었네)
- .....
- 說操築于傅岩兮,    부열이 부암에서 판축을 가지고 담 쌓는 일을 하였는데,
- 武丁用而不疑.       무정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를 재상에 등용하였네.
- 呂望之鼓刀兮,       여망은 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 遭周文而得舉.       주의 문왕을 만나 太師로 기용되었다네.
- 寧戚之謳歌兮,       영척은 소에게 사료를 주고 우각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 齊桓聞以該輔.       齊의 桓公이 그 노래를 듣고 난후 대부에 임용하였네.

일>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노래하여,<sup>13)</sup> 성군의 해안으로 인해 현신의 재능을 부각시킬 수 있었음을 피력하여 고대성왕의 公心 우선의 태도를 찬미하였다. 이는 현재 楚俗과 變革에 장애가 되는 舊귀족 집단의 ‘心治’에 대한 반대와 신흥역량에 대한 갈망을 言外에 함축시켜 그의 미정이상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3) 봉당금지·상벌규명

굴원이 그의 초기에 회왕의 신임을 받고 정치변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그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상관대부 靳尙의 저지와 모략으로 회왕의 노여움을 사면서 그의 측근에서 배제되었다.<sup>14)</sup> 그 이후 회왕은 근상의 무리들에 의해 해안을 잃고 私益을 추구하는 집단에 좌우되어 政令을 발포하고 상벌을 내리는 혼주가 되었다. 실제로 《戰國策·楚策三》에 의거하면, 당시 초나라의 대신과 친척들은 모두 賢人을 傷害함으로써 자기가 발전하는 계단으로 삼거나, 군왕이라는 자는 群臣과 백성에게 과중한 賦稅를 징수하여, 인민의 원한을 초래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sup>15)</sup>

굴원은 이와 같이 군왕이 비방자의 참언을 믿고 하루 아침에 자신과의 약속을 반복할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진상도 규명하지 않은 채, 충신을 멀리 방축하여, 상벌의 관계를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회왕의 처사를 그의 시편에서 원망하고 있다.<sup>16)</sup>

13) 聞百里之爲虜兮, 듣자하니 백리해는 일찍이 쫓의 포로가 된 적이 있었고,  
伊尹烹于庖廚. 이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뛰어났다고 하네.  
呂望鼓于朝歌兮, 여망은 朝歌에서 백정을 한 적이 있었고,  
寧戚歌而飯牛. 영척은 야간에 소에게 사료를 주다가 노래로써 자신의 懷才不遇를 하소연 했었다네.  
不逢湯武與桓繆兮, 商의 湯, 周의 武王, 齊의 桓公, 秦의 穆公을 만나지 못했다면,  
世孰云而知之? 세상 사람들 누구인들 그들의 장점을 알 수 있었을까?

14) 《사기·굴원가생열전》

15) “今王大臣父兄, 好傷賢以爲資, 厚賦斂諸臣百姓, 使王見疾於民, 非忠臣也.”

16) 예시1: <이소>

荃不察余之中情兮, 그대는 나의 내심을 이해하지 않고,

말하자면, 군왕의 귀와 눈을 막는 ‘壅蔽’를 반대하고, 과벌을 지어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朋黨’을 금지하며, 법도에 의거하여 규명하는 ‘賞罰’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미정이상에 대한 정치철학의 기저를 엿볼 수 있게 한다고 보아진다.

요컨대, 국가의 경영에 대한 굴원의 정치이상은 군왕의 눈과 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sup>17)</sup>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정치이상은 군왕의 총명을 바탕으로 하여, 봉당이 없는 세상, 상벌이 분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4) 평시농사·戰時전쟁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춘추 후기부터 노예의 끊임없는 폭동과 봉건 지주계급의 흥기로 인하여 기존의 노예주 귀족계급의 통치를 유지하였던

反信讒而齎怒. .....	오히려 讒訴만 믿고 노여워하십니다.
初既與余成言兮, 後悔遁而有他.	당초에는 나와 약속도 하셨는데, 지금은 별도의 속셈이 있으신가 다시 처음 하셨던 말씀을 바꾸셨네.
예시2: <석왕일> 君念怒而待臣兮, 不清澈其然否. 蔽晦君之聰明兮, 虛惑誤又以欺. 弗參驗以考實兮, 遠遷臣而弗思. 信讒諛之混濁兮, 盛氣志而過之.	군왕께서 참언을 듣고 나서 나에게 분노를 품으시고, 또한 사정의 眞僞는 따지지도 않으시네. 아침자들은 군왕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니, 그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짜로 진짜를 어지럽혔네, 군왕께서는 사건을 비교 검증하여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시고, 나를 멀리 방축시켜 옛정을 고려하지 않으셨도다. 군왕께서는 혼탁하고 추악한 참언만 믿으시고, 기세가 등등하게 이 몸을 능멸하시면서 나에게 죄를 씌우시네.

17) <이소>:

惟夫黨人之儔樂兮, 路幽昧以險隘. 豈余身之憚殃兮, 恐皇輿之敗績.	과벌 만들어 사적인 이익 피하여 구차하게 평안과 향락을 즐기니, 그들의 전도가 킁킁하고 험난하도다. 설마 내 자신이 재난을 당할까 두렵겠는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조국이 이로 인해 전복되는 것이로다.
---	--

‘禮治’가 점차 붕괴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유가의 예치사상에 대립하여 각 제후국에서는 변법을 통하여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풍조가 출현하였다. 그러면서 전국시기에 와서는 마침내 농사를 지으면서 전쟁할 것을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진보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한 부국강병의 共同綱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史記·秦本紀》에 기재된 상앙의 변법을 보면, “집에 있을 때는 농사에 힘쓰고, 전시엔 죽음을 불사하도록 상벌로써 고무시켰다.”(內務耕稼, 外勸戰死之賞罰)<sup>18)</sup> 이는 오기의 변법 중에도 “耕戰에 정통한 관리 精耕戰之士”를 주장하고 있다.<sup>19)</sup> 초나라는 오기에 의해 아주 일찍이 이 법령을 추진하였다.

굴원이 생존하고 있는 전국 후기 역시 전대의 이러한 사상이 계승 발전되었다. 굴원의 시에는 초국의 先賢인 오기의 ‘耕戰’ 사상의 일환으로 엿보이는 軍功을 세운 將士에 대한 찬미가 돋보인다. 이를 테면, 《九歌》 속의 작품인 <國殤><sup>20)</sup>은 비록 戰死한 將士를 애도하는 祭歌이지만, 그들이

18) 또한 《商君書全譯·農戰》(貴州人民, 1993년)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나라가 흥하기 위한 것은 평시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戰時에는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나라가 농사를 지으면서 전쟁을 해야 안정을 누릴 수 있고, 農戰을 주관해야 만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國之所以興者, 農戰也. 國待農戰而安, 主待農戰而尊.)

19) 《사기·范雎蔡澤列傳》

20) 본편은 戰死한 將士들을 애도한 輓詩이다. ‘殤’이란 의미는 고대에는 아직 20세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을 지칭하였다. 여기서서는 出征하여 戰死한 靑壯年을 지칭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기 때문에 國殤이라고 칭한 것이다. 본 시중에 묘사한 전쟁장면은 한 두 차례의 전쟁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楚國이 다년간 패권을 다툰 역사적인 典型을 개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시를 보면:

旌蔽日兮敵若雲,	깃발이 하늘과 해를 가리며 적의 무리가 구름과 같이 몰려오자,
矢交墜兮士爭先,	화살이 연이어 떨어지는 속으로 병사들은 다투어서 전진하네.
凌余陣兮躐余行,	적군이 우리 행렬의 진영을 짓밟으니,
左驂殪兮右刃傷,	오른 쪽 참마는 다치고 왼쪽 참마는 쓰러지도다.
霾兩輪兮繫四馬,	전차의 양쪽 바퀴 땅속 깊이 박히자 네 필의 말이 묶여버리네,
援玉枹兮擊鳴鼓,	(그러자)主將은 옥 북채 잡고 戰鼓를 맹렬하게 두드리도다.

투쟁하는 士氣에 대한 찬송이 두드러져 있음은 물론이고, 將士의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함이나, 그들의 장엄한 태도와 의지에 대한 敬意를 찬미한 것을 보면, 그의 強國에 대한 이해가 ‘軍功’에 기초하고 있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농사에 힘쓴다’(勵耕)는 사상으로 말하자면, 이는 언제나 동시에 遊說客에 대한 부정으로 표현이 된다. 《史記·范雎蔡澤列傳》에서, 오기가 언급한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을 금지하고, 농사에 힘쓰고 전투에 전력을 다하는 士民을 장려하며”(禁游客之民, 精耕戰之士), “사방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 사람들이 입을 뿜 방법이 없도록 한다.”(使馳說之士無所開其口)라는 견해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해가 된다. 이에 대하여 굴원 역시 그의 시편 <卜居><sup>21)</sup>에서, 하나의 대립되는 모순으로 유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여, “力耕”의 실용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이와 같이 ‘耕戰’에 대한 가치부여로 그 시대가 주장한 진보적인 사람들의 공통주장에 공감을 보임으로서, 농사짓기와 전쟁하기를 동일한 삶의 축으로 인정하는 전국시대 실용정신이 그의 조국 초나라에서도 실현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出不入兮往不反,	장사들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건만,
平原忽兮路超遠,	저 평원의 먼 길을 향해 떠나도다.
帶長劍兮挾秦宮,	장검을 허리에 차고 強弓을 옆구리에 끼고 사막에서 싸우다가,
首身離兮心不懲.	머리와 몸이 각각 분리되어도 응심만큼은 영원히 굽힐 줄 모르는구나.

誠既勇兮又以武,	진실로 용감무쌍할 뿐 아니라 또한 무예도 뛰어나며,
終剛強兮不可凌.	시종 의지도 굳세고 의연하여 범할 수 없도다.
身既死兮神以靈,	몸은 이미 죽었으나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어,
魂魄毅兮爲鬼雄!	의연한 혼백이 신령 중에 으뜸이로세.

21) 寧誅鋤草茅以力耕乎, 차라리 耕作에 힘써서 풀이나 뽑아내며 농사나 지을 것인가,  
將游大人以成名乎? 아니면 제후에게 유세하여 명성과 작위를 구할 것인가?

## (5) 民本思想

춘추전국시대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던 약육강식의 시대이다. 고로 자연히 천하는 종래의 신권관념이나 천명사상이 옹어지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시대였다. 이로 인해, 천명의 보호권 안에서 안주할 수 있었던 周代の 왕권 역시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 되는 쪽으로 이동되었다. 《古文尙書五子之歌》에서 “백성은 오로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평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는 말이나, 《孟子·盡心》에서, “백성은 귀한 존재이다.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왕의 중요도는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라는 사상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국가가 일어날 때는, 군왕이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국가가 망할 때는 군왕이 神에게 귀를 기울인다.”(國將興, 聽于民; 將亡, 聽于神.)<sup>22)</sup> “무릇 인민은, 神의 주인이다. 그래서 성왕은 먼저 인민을 보호하고 난 다음에 신령에게 힘을 쏟기에 이른다.”(夫民, 神之主也, 是以聖王先成民而後致于力神.)<sup>23)</sup>라는 데까지 발전 확대되면서 소위 ‘인민이 근본이 되는 민본사상’이 당시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굴원 역시 <이소>에서 정치혁신이 실패하게 된 것을 묘사 할 때, 나아갈 것인가와 물러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머뭇거리던 중, 女嬃의 권고를 직면하고, 인생의 뜻眞諦를 증명하고자, “중화(순임금)에게 가서 하소연 하리라.”(就重華而陳詞)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역사상의 폭군과 성왕의 흥망성쇠를 통해, 인본주의(민본사상)적인 정치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느님께선 편애함이 없으시니, 백성들의 덕을 살피시어 도움을 베푸시네.”(皇天無私阿兮, 覽民德焉錯輔.)라고 하였는데, 이는 굴원의 前代사상의 계승이다. 熊良智는 이에 대하여, 굴원은 오히려 “德”앞에 “民”字를 한 개 더 첨가하여 “민”의 작용을 돌출시켰기 때문에, 이는 바로 시대적인 진보이며, 민본사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

22)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莊公 32년》(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년)

23) 같은 책 桓公 6년

낸 것<sup>24)</sup>이라고 말하였는데,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어서 “(先賢들의 處事는)과거를 회고해서 다가 올 세상을 바라보며”(瞻前而顧后兮), “이로써 인민을 통치하는 책략을 관찰한다.”(相觀民之計極.)라고 읊고 있는데, 이는 통치의 주요대상을 인민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옹양지는 湯炳正의 《屈賦新探》에서의 견해 즉, “군왕을 세울 때는 백성을 인애하는 자를 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현자의 선발등용은 백성이 존경하는 자를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立君是以民之所德者爲準則, 舉賢是以民之所敬者爲準則.)는데 동의하며, 굴원의 “하늘은 편애함이 없다.”(皇天無私阿兮)라는 기본관점을 “국민이 소망하는 바를 하늘이 반드시 들어 준다.”(民之所欲, 天必從之.)라는 사상으로 보아, 하늘은 ‘군왕’의 편인 아닌 ‘民’의 편에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공감의 간다.<sup>25)</sup>

이상을 통해, 굴원이 추구했던 정치 이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추구한 미정이상은 바로 당시 진보주의 정치가들이 추구했던 정치이상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 시대에 유행했던 유가, 도가, 묵가 등의 학설을 선택적으로 取捨하여 수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조국 초나라는 중원의 유교문화권에서 본다면, 아직 제정일치의 의식이 혼재하여 巫文化가 상층문화를 이루고 있는 야만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굴원의 정치에 대한 인식만은 중원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가장 진보적인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이것을 바로 그의 조국인 초나라에 실현해보고자 전 생애를 두고 노력했던 인물로 판단된다. 그럼 다음 장에서 그의 이러한 정치사상에 대한 인식을 본고의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아 본론의 주제로 삼고자하는 ‘君臣遇合’의 정치도식이 과연 <상군>의 시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24) 熊良智 著, 《楚文化研究》(成都: 巴蜀書社, 2002) 14쪽 참조.

25) 같은 책 14쪽 참조.

### Ⅲ. <湘君>에 나타난 군신우합

<상군>은 <湘夫人>과 자매편으로 필자는 이미 본 텍스트를 <<湘君>과 <湘夫人>을 통해 본 巫的世界>라는 제목으로 《中國語文學》 제 50집에 발표한 적이 있다. 거기에서는 이 자매편을 ‘巫歌’로 보고 두 작품에 표현된 무적세계를 고찰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본 텍스트에 대하여 또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해보고자 한다. 즉 이 자매편은 단지 巫歌의 형식을 빌려서 굴원의 君臣遇함에 대한 열망이라는 정치성을 띤 주제를 함축시킨 무가형식의 政治抒情詩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굴원의 정치이상은 다양하다. 그는 이러한 각종의 미정 이상을 실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를 ‘군신우합’이라는 정치유형에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형은 법칙에 대한 기준이 동일한 君臣이 만나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굴원은 <이소>에서 자신의 정치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군신우합’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실 시인이 아니라 정치가이다. 단지 문학성취가 뛰어나서 그의 정치사상이 문학에 의해 가리워졌을 뿐이다. 하여서, 본고에서는 굴원의 무가에 대해서도 정치사상의 내포를 탐색해보던 중에 그의 군신우합에 대한 정치도식이 ‘神巫交接’이라는 구성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신무교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상군>의 서정방식이 ‘巫’가 女神인 湘夫人으로 분장하여 그의 愛神인 상군을 迎神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상에서 보면 ‘神神交接’이겠지만, 宗教儀式상에서 보면 ‘신무교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이 신무교접은 어떻게 보아야, ‘君臣遇함’이라는 도식과 동일시 될 수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초국은 巫史文化의 국가인 만큼 神·巫가 합일하고 政敎가 합일하는 까닭에 당시 인민의 입장에서는 神, 巫, 王은 똑 같이 인민의 화복을 좌우하는 존재로서, 그들이 獻祭해야할 대상이었다. 본고의 텍

스트인 <상군>은 인민이 敬畏하는 主巫가 또한 인민의 애신이기도한 湘君을 마중 나가는 路程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무의 상군을 향한 교접의 염원은 종교의식의 분장 상에서 보면, 바로 巫(人)와 神(君)의 연애를 歌舞로 공연하는 형식을 빌어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속의 ‘군신우합’의 이야기로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주무가 본시 사람이기 때문에 주무를 ‘臣’으로, 또한 상군은 靈巫 문화에서 군왕과 동일시되는 것이니, 이를 ‘군왕’으로 가정한다면, 神·巫의 관계를 君·臣의 관계로 등식화가 가능해지는 하나의 정치 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언급해 보면, 《漢書·地理志》에서, 초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巫鬼’를 믿고 ‘淫祀’를 중요하게 생각<sup>26)</sup>하였다. 또한 굴원 자신도 三姓(昭·屈·景)의 貞人群에 속하는 귀족이었다.<sup>27)</sup> 그러나만큼 그 역시 자연히 巫的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이소>

26) “楚人信巫鬼, 重淫祀.” 여기서 ‘巫鬼’란 巫祝을 말함. 곧 巫祝에서, 귀신을 섬기는 것은 巫이고, 祭主와 贊詞者(찬송하는 문사나 언어)는 祝이라고 함. 훗날에는 連用하여, 占卜, 祭祀를 관장하는 것을 지칭하였음. 또한 ‘淫祀’란, 禮制에 부합되지 않는 제사를 말함.

27) 《사기·굴원열전》과 《離騷經序》참조. ‘貞人’이란, 정결한 사람이란 뜻에서 나온 용어로, 본래 씨족 내지는 부족의 장에 해당한다. 이들은 연합해서 한 명의 제사장(왕)을 선출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제사장(왕)이 되며, 그 나머지 정인들은 그 제사장(왕) 밑에서 巫官을 지내며 국가대사에 참여하였다. 이로 보건대 고대의 고관들은 모두 씨족장 내지는 부족장 출신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족장들이란, 근본적으로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니, 그들은 바로 巫的 성격의 소유자들인 것이다.

28)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들 무적 성격의 소유자들은 무 본연의 Ecstasy 상태에서의 접신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祝’으로서의 성격으로 변하고 만다. ‘축’이란 무에서 나온 성격의 소유자들로서, 그들은 祭儀를 주관하고 祝辭를 쓰는 등 제의와 관련된 성스러운 문사를 장악하게 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은 제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 나름대로 성스럽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만한 외교문서나 법령 같은 문사를 장악하게 된다. 그야말로 祭政一致의 실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사기·굴원열전》에 보면, 굴원이 문사를 주관한 흔적이 보이고 그가 외교문서나 법령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느니 만큼 ‘大夫’ 굴원 역시 ‘축’의 성격을 띤 관직을 맡은 것으로 추측된다.

에서 그가 모시고 있던 제왕인 회왕을 ‘靈修’<sup>29)</sup>라고 칭한 것으로 보아, 굴원 역시도 그의 ‘巫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孫作雲의 《九歌山鬼考》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국의 국왕은 정치상에서는 왕이라고 칭하지만, 종교와 제사상에서는 “靈修”라고 칭한다. “靈修”는 또한 바로 巫長의 의미이다.(楚國의國王, 在政治上稱王, 在宗教祭祀上稱“靈修”—“靈修”也就是巫長的意思.)<sup>30)</sup>

그러므로 굴원이 巫曲의 형식을 빌려 정치관련의 내용을 함축시킨다고 하여 조금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군>은 일단 표현 수법 상에서 보면, 女巫의 1인칭 자서적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무의 상군에 대한 愛戀이 매우 섬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상군>의 迎神 과정을 4개 단계로 구분하여, 이로부터 ‘신무교접’을 위한 주무의 다양한 노력을 천착해 보고, 그것이 바로 세속의 ‘군신우합’이라는 정치유형의 또 다른 하나의 도식으로 가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男女相戀으로 접근한 군신우합

본 단계는 이미 시적화자인 주무가 그의 애신인 상군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기에 시작하는 첫머리에서부터 주무는 상군의 顯身을 기다리다가 나타나지 않자 더 이상은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떨치고 나와서 분장을 한 다음, ‘桂舟’에 몸을 실어 영신의 노정에 오르고 있다. 주무의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바로 男女相戀에서 교감

29) 王逸 注釋: “靈, 神也, 巫也, 修, 長也.”

30) 《清華學報》 제11권 4기, 1935년.

되는 감정의 일환으로서, 例詩를 보면:

- 1. 君不行兮夷犹      당신 湘君께서 주저하며 오시지 않는 것을 보니,
- 2. 蹇誰留兮安洲;    아, 누구 때문에 동정호에 머물러 계시는가요;
- 3. 美要眇兮宜修,    본래도 아름다운 자태이나 수식까지 하여서 더욱 곱  
    게 단장하고,
- 4. 沛吾乘兮桂舟;    급물살에 桂木舟를 띄어 마중을 나갑니다.
- 5. 令沅湘兮无波,    저는 沅水와 湘水더러 풍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 6. 使江水兮安流;    長江 역시 순탄하게 흐르도록 하였답니다.
- 7. 望夫君兮未來,    당신께서 오시려나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지만 아직  
    껏 눈앞에 보이지 않네요.
- 8. 吹參差兮誰思;    (제가) 排簫를 불면서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생각  
    이나 해 보셨나요?

1,2구에서 주무는 상군의 顯身이 늦어지자 남녀지간의 감정으로 그의 늦은 출현을 의심하는 辭說<sup>31)</sup>을 내뱉고 있다. 그리고는 이어서 3,4구에서는 자신은 본시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다시 단장을 한다는 남녀지간의 관계로 주무의 무적 순결성을 상군을 향해 나타낸다.(美要眇兮宜修) 5,6구에서는 무적 능력으로 상군이 오실 물길에 주술을 걸어 逆流를 順流로 만드는 장면(令沅湘兮无波, 使江水兮安流)을 보이는데, 이는 무 본연의 주술능력으로 상군의 평안한 외출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주무의 이와 같은 섬세한 배려심은 오히려 기다림에 대한 熱感을 더욱 뜨겁게 느끼도록 함으로서, 상군을 향한 연모의 정이 더욱더 절실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1,2구에서 상군이 제때에 나타나지

31)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辭說의 辭字는 “楚辭”의 辭에서 따 온 것이다. 김인호의 견해에 의거하면, 辭는 巫祝이 神이나 死者에게 고할 때 읊거나 노래 부른 祝辭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辭란 神語性을 띤 말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필자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읽기에 편리하도록 말쑤「說」字를 하나 더 첨가하여 필자 자의로 辭說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여 위의 의미를 표현하기로 한다.(이상은 줄고 <<湘君>>과 <湘夫人>을 통해 본 巫的世界>, 《中國語文學》 제50집) pp.148-149 참조)

않았을 때 드러낸 감정(아, 누구 때문에 동정호에 머물러 계시는가요)과 비교를 해보면, 8구의 “(제가) 排簫를 불면서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라는 다그침은 훨씬 구체적인 것으로서, 주무의 相戀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1구(君不行兮夷猶)와 7구(望夫君兮未來)에서 사용하고 있는 ‘君’자와 ‘夫君’의 詩語를 가지고도 본 단락에서의 남녀상련의 경계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즉 1구에서 ‘君’으로만 지칭했던 상군에 대한 호칭을 7구에서는 近稱의 의미를 지닌 ‘夫’字의 지시사를 한 자 더 첨가하여 ‘夫君’이라고 칭함으로써, 상군을 향한 친밀도를 한층 더 깊게 표현하여, ‘내 남자’라는 소유감을 강화시켜 주무의 상군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보다시피, 주무의 상군에 대한 이러한 연모의 정감은 남녀상련의 일환으로서, 그의 ‘신무교접’을 표현하기위한 방편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텍스트에서는 또한 이 ‘신무교접’에 대한 표현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초나라는 祭政이 일치하고 있는 巫史문화의 권역이다.<sup>32)</sup> 그러니만큼 여기서 신무교접은 또 하나의 정치상의 측면인 ‘군신우합’이라는 정치유형을 동전의 양면처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신무교접이라는 표층구조로서, 중국고대사회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정치문제이며, 어떠한 정치인물이든 간에 정치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군신우합’이라는 정치도식을 그 내포로 하는 심층구조를 하나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시인 굴원은 당시 초국의 가장 활동적인 정치

32) 桓譚이 그의 《新論》에서 언급한 기록을 보면: “옛날에 초의 영왕은 사람됨이 교만방자하여 아랫 사람을 경시하고, 巫祝의 말만 믿어 친히 제단 앞에서 춤을 추었다. 吳人이 침입해왔다는 사실을 황급히 알렸음에도 靈王은 태연자약하게 북을 치면서 춤을 추었다.”(昔楚靈王驕逸輕下, 神巫祝之道, 躬舞壇前, 吳人來攻, 其國人告急, 而靈王鼓舞自若.)(<《太平御覽》 권735) 인간 영왕의 이러한 태도는 곧 국가의 大事를 신권神權에 맡기는 제사장의 태도로서 그 밑의 신하들은 자연 모두 무적 성격을 소유한 인물됨을 추리할 수 있다.

가였으니, 텍스트에서 표현한 신무교접 또한 궁극적으로는 군신우합이라는 정치도식을 표현하기위한 표층구조로 내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지간이다. 신무교접을 남녀상연의 관계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친밀도를 표현하는 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텍스트에서는 신무교접이라는 표층구조에 다시 ‘군신우합’이라는 정치도식을 함축시킴으로서, 굴원의 정치생애에서 ‘君臣不遇’를 ‘군신우합’으로 되돌려 보기 위한 끝없는 노정을 ‘迎神’의 과정에 빗대어 예술적으로 형상화시켰다고 보아진다. 실제로 그는 그의 <九章·惜誦>에서 군신지간의 친밀도에 대하여, “군왕보다 신하를 더욱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니, 멀리서 증명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sup>33)</sup>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관점이 신무교접을 남녀지간의 애정으로 표현하는 이유일 것이며, 따라서 ‘군신지간의 우합’이라는 정치도식에 이에 함축시킨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향초로 접근한 군신우합

1단계에서 계목선을 타고 영신을 나갔던 주무가 2단계에 와서는 쾌속정인 ‘飛龍船’으로 바꾸어 타고, 아예 상군의 거처지인 ‘洞庭湖’로 들어가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단계이다. 예시를 보면:

- |             |                                      |
|-------------|--------------------------------------|
| 9. 駕飛龍兮北征,  | 나는 비룡선을 타고 (약속장소인)北쪽 강변으로 돌아가고자 하다가, |
| 10. 適吾道兮洞庭; | 오히려 뱃머리를 돌려서 동정호로 들어 가봅니다.           |
| 11. 薜荔柏兮蕙綯, | 船艙은 薜荔로 장식하고 帳幕은 蕙草로 꾸미고,            |
| 12. 荃橈兮蘭旌;  | 상앗대는 蓀草로 장식하고, 깃발 꼭대기엔 난 초로써 장식했답니다; |
| 13. 望涇陽兮極浦, | 포구가 있는 涇陽쪽을 아득하게 바라보면서,              |

33) “故相臣莫若君兮, 所以證之不遠.”

14. 橫大江兮揚靈. 비룡선으로 장강을 가로 지르니 기분이 날아갈듯  
합니다.
15. 揚靈兮未極.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껏 나타나지  
않음에,
16. 女嬋媛兮爲余太息; 助巫 역시 걱정되는지 나를 위해 애를 태웁니다.
17. 橫流涕兮潺湲,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면서,
18. 隱思君兮擘側; 상군을 그리다가 보니 간장이 끊어질듯 합니다.

그런데 본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주무가 ‘迎神船’을 쾌속정인 ‘비룡선’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또한 비룡선의 구석구석을 온통 다양한 향초로 장식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잠깐 분석의 편의를 위해, 楚俗에서의 향초에 대한 의미를 잠깐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초속에서는 주로 남녀지간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매개로써 향초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향초가 바로 애정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주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 남녀지간의 婚事에나, 男女相悅에 이를 사용해 왔다.<sup>34)</sup> 그래서

34) 清·乾隆19년 宗陸堂刻本の 《荊門州志》: “二月, 花朝. 納采問名多以是日爲吉, 移接花果.”(이월은 꽃들의 생일달이다. 납채와 문명은 대체로 이 날을 길하다고 여기며, 꽃나무를 이식하고 果樹를 접목한다.)  
光緒 8년의 板本인 《孝感縣志》: “月十五日爲花朝, 婚嫁, 穿幼女耳.”(2월15일은 百花의 생일날이므로, 시집가고 장가든다. 어린 딸의 귀까지 뚫는다.)  
聞一多 <高禘郊社祖廟通考跋>《清華學報》12권3期: <진유>의 시에 “秉蘭간초를 쥐고”의 “蘭”은 곧 요초이다. 蘭은 곧 蘭이다. 《左傳》선공 3년에 기재를 보면: 정문공에게는 燕姑라고 하는 친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그녀는) 天使가 자기에게 난초를 주는 꿈을 꾸었다. 천사는 꿈에서 말하기를: 나는 伯儵이라고 하는데, 바로 너의 조상이다. 이것(난초)으로써 너의 보배로 삼거라. 난초에게는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향기가 있으니, 네가 (이들) 몸에 지니게 되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꿈을 꾸고 난 뒤에, 문공을 만났는데, (문공은 그의 친척인) 燕姑에게 그 난초를 주고 그것을 몸에 장식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름답다고 탄복했다.” <高唐賦>·《山海經》·《博物志》·《搜神記》 등의 책에도 기재된 말이 동일하다. “그녀에게 난초를 주고 그것을 장식하도록 했다”라는 구절은 《詩》와 《賦》에 있는 것과 부합된다. <椒聊>詩의 “나에게 한 줌의 산초를 주네”라고 하는 구절 역시 이와 같은 유형이다. 陳琳의 <神女賦>에서 “한 줌의 산초를 펼쳐 나에게 주면서, 洞房에서 함께 즐기자고 청하네.”라는 구절도 증명할 만하다. 椒와 蘭은 모두 향

이로 인해, 향초는 초인의 靈巫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楚人の 생활 속에서는 향초의 애정무술을 믿는 영무 문화적 풍습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속된 무리 속에 섞여있어도 美質을 가지고 있다면, 향초를 매개로 삼아서, ‘좋은 만남’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는 아마도 향초가 지니고 있는 그의 향기와 정결함으로 인해, 초인은 이를 훌륭한 덕행의 하나로 상징을 했던 것 같다. 고로 초인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인 楚辭 속에서는 이것이 여자(혹은 臣下)가 남자(혹은 君王)의 애정(혹은 신임)을 얻는 기본조건이 되고 있는 것 같다.<sup>35)</sup>

지금 위의 텍스트에서는, 주무가 자신이 타고 있는 비룡선의 여기저기에 향초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이 향초들이 ‘상군’에게 애정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창에는 ‘薜荔’· 장막에는 ‘蕙草’· 상앗대에는 ‘蓀草’· 깃발엔 ‘蘭草’ 등으로 장식하여(11, 12구), 상군과의 관계를 소통시키는데 이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선창다리(船艙)에 장식한 시원한 녹색냉쿨의 ‘벽려’<sup>36)</sup>로는 다른 수목

초이다. <이소>와 <구가>에는 情人에게 향초를 준다는 말이 더욱 많다. (<溱洧>“秉蘭”之“蘭” 卽瑤草. 蘭卽蘭. 《左傳》宣公三年: 鄭文公有賤妾曰燕姑, 夢天使與已蘭, 曰: 余爲伯儵, 余而祖也. 以是爲而子, 以蘭有國香, 人服媚之如是. 既而文公見之, 與之蘭而御<sup>1)</sup>之. “人服媚之”, 與 <高唐賦>《山海經》《博物志》《搜神記》等書之語同. “與之蘭而御之” 與《詩》及《賦》吻合. <椒聊>詩之“貽我握椒”亦此類. 陳琳<神女賦>“申握椒以貽予, 請同宴乎奧房.”可證. 椒、蘭皆香草也. <離騷><九歌>言證香草尤多)

- 35) <湘君>: “采薜荔. 벽려를 채취한다”, “攀芙蓉. 부용을 딪다.”, “芳洲에서 두약을 채취하여, 시녀에게 준다.”(采芳洲兮杜若, 將以遺兮下女.)  
 <湘夫人>: “搴汀洲兮杜若, 將以遺兮遠者.”(수중의 섬에서 두약을 채취하여, 멀리 있는 그녀에게 보낸다.)  
 <大司命>: “折疏麻兮瑤華, 將以遺兮離居.”(神麻의 옥색 꽃을 잘라내어, 홀로 사는 司命神에게 보낸다.)  
 <山鬼>: “석란은 머리에 쓰고 두형은 띠로 두르고, 香花의 가지는 꺾어서 情人에게 보낸다.”(被石蘭兮帶杜衡, 折芳馨兮遺所思.)

- 36) 薜荔: 벽려의 잎은 두텁고 실과하며, 덩굴모양으로 叢生하여, 항상 수목 위를 덮는다. <湘夫人>에서는 “벽려를 엮어서 휘장으로 함”(罔薜荔兮爲帷)이라는

에 의지해서야 만이 살 수 있는 벽려의 物性이 주무에 대한 상군의 애정에 환상을 야기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장막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淨身’향료의 물성을 지닌 혜초<sup>37)</sup>가, 상군의 무정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주무를 향해 순수한 애정을 불태워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상앗대에는 민족정감이 깃들어서 초왕의 대명사로 상용되고 있는 손초<sup>38)</sup>를

구절이 있다. 벽려는 埴地에 살기 때문에, <상군>에는 “采薜荔兮水中”이라고 표현하여 상군을 만날 가능성이 없음을 비유하기도 하였다. 薜荔는 사철나무이며, 고래로부터 집담장이나 담장의 모퉁이 돌계단에 심어서 綠化植物로 상용했고, 아울러 역대시인의 吟誦의 대상이 되어왔다.(潘富俊 著 《楚辭植物圖鑒》(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년) pp.42-43) 이후는 《楚辭植物圖鑒》으로 약칭함.

- 37) 蕙草: 《楚辭》중에 나오는 중요한 향초로서, 이는 全株가 芳香을 지니고 있으며 능히 악취를 제거하고 몸에 지니면 향미를 발산함. 이의 형상이 층층으로 되어있는 고층탑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九層塔”이라고 칭하기도 함. 고대에는 이를 祭禮用(祓除)으로 쓰기도 함. 《本草衍義》에는 고대 부녀자들은 항상 九層塔의 기름성분을 가지고 모발에 윤기를 내었는데 그 향기가 더 이상 향그러울 수 없었다고 하며, 또한 본 향초를 가지고 침상갈래나 혹은 방석이나 요를 만들어 쓰기도 했으며(이상은 《초사식물도감》 p.31쪽 참조), 洪興祖의 《楚辭補注》 7쪽에서는 또 陶隱居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연초라고 칭한다. 모양이 마치 띠 풀 같으며 향기가 나서, 薰草라고 한다. 인가에서는 많이 이를 심는다.”(俗人呼蕙草, 狀如茅而香, 爲薰草, 人家頗種之.)라고 언급되어 있음.
- 38) 蓀草: 현재의 菖蒲로써, 이 향초는 <이소>에서, 군왕으로 존칭되는 傳統意象임. 이는 香味가 짙어서 白芷와 함께 병칭이 됨. <이소>에서 “蓀”을 전체의 유의 핵심으로 하는 것은 “蓀” 속에 초인의 여성조상의 그림자가 傳承되고 있기 때문이다. 굴원의 <九歌·少司命>에서도, 相戀情緒를 묘사한 문구 속에, “蓀”이라는 향초에서 原始意象이 부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世人들은 자연히 그들의 예쁜 자식들이 있거늘, 蓀(你)은 어찌하여 또 그들을 위해 걱정을 하느냐?”(夫人自有兮美子, 蓀何以兮愁苦.) “장검을 높이 들고 후손을 보호하고, 蓀이시여, 당신이야말로 만민의 인명을 주재하십니다.”(竦長劍兮擁幼艾, 蓀獨宜兮爲民正.) 여기서 “少司命”이라는 이 여신을 “만민을 공평하게 주재함”(萬民之平正)이라고 말할 하는 것은 천하만민의 자손을 위해 괴로워해주고 영아와 유아를 보호해주고, 인간의 후예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떤 이는 “少司命은 바로 高禰女神”이라고 인정한다. 여기서 갑자기 畚에 비유해서 사용하는 향초를 어찌해서 神에다가 비유할 수 있는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초국문화 중에는 政敎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神巫가 합일된 배경과 근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熊良智,

장식하여, 상군에게 바로 주무가 상군을 그들 인민의 영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고 있음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영신선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발에 장식한 “난초”<sup>39)</sup>로는 초국에서 제일 가는 芳香草를 바로 주무자신이 지니고 있다는 자긍심을 암시하여, 상군의 주무에 대한 애정에 신뢰감을 주문으로 걸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무는 향초 하나하나가 상군의 마음 속에 애정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매개로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무의 이러한 의도는 영무세계에서 신무지간의 소통을 위해 장치하는 무속행위로 이는 곧 초인 일반이 가지고 있는 초속의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1단계에서 영신행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이렇게 2단계의 영신에서는 초속에서 성행되는 향초를 매개로 하여 그의 신무지간의 교접을 성취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13, 14구에서 이들의 도움을 믿고 신나게 영신선을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애신의 등장은 묘연하였다. 주무는 상군을 위해 연출한 龍舟의 화초 장식이 전혀 그 애정의 무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의 실망은 앞 단계에서 겪었던 아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16구에서 助巫(侍女)가 그를 위해 애태우는 모습이나, 17구에서 주무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양(橫流涕兮潺湲) 등은 모두 일반 남녀지간의 상련에서 그들의 감정이 서로 어긋났을 때 볼 수 있는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방법이 ‘군신우합’의 유형과 同構現象을 가진다는 것인가?

본시 정치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군신이 함께 만나서 화합해야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작품이다. 신무지간의 교접이라는 것도 쌍방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고로 이들 兩者는 만남이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남녀지간의 상열에서 향초를 통해 애정의 결합을 환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양자의 쌍방도 결국은 남

《楚辭文化研究》 p.141 참조)

39) 주석 34)의 聞一多 자료 참조 바람.

너 兩性의 결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초의 芳香을 매개로 하는 것이니, 군신우합이라는 정치도식도 결국은 신무교접과 동구현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추리가 가능한 것이다.

본 단계에서 지금 주무는 만나기로 약정된 시간에 애신인 상군이 등장하지 않자, 자신을 알리고 동시에 애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향초의 힘을 빌려 그들 사이의 상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신우합에서도 좋기는 양쪽이 모두 훌륭하여 고대의 성군과 현신의 관계 처럼 媒者 없이도 ‘군신우합’이 이루어진다면 최상이겠지만,<sup>40)</sup> 세속의 군신관계의 경우는 더욱이 초국의 현실은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굴원의 정치생애가 험난해진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굴원이 만든 이 텍스트에서 그는 신무교접에서 매자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세속의 ‘군신우합’에서도 역시 동일조건이 요구됨을 언외에 함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방금 언급했듯이 향초라는 매개는 남녀지간의 상열을 야기하는 巫術性을 지녔기 때문에, 신무지간의 교접에서도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主要神物의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가? 더욱이 초국은 巫史 국가인 만큼 초국에서의 ‘군신우합’이란, 곧 ‘巫長’과 ‘巫官’의 遇合이기도 한 것이니, 신무교접을 군신우합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사건과 사리에 모두 부합이 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굴원의 일생이 정치가의 생애였음을 감안할 때, 또한 굴원의 신분이 巫官으로서의 성격도 지닌 것임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추리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본 단계에서도 주무의 신무교접에 대한 열망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40) II.2인 ‘舉賢授能’ 항목에서 굴원은 고대역사상에 생존했던 聖君과 賢臣의 典範을 찾아 직접 그의 작품인 <이소>와 <惜往日> 속에서 본인의 미정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군의 혜안이 없었다면 현신의 재능이 死藏되었을 것임을 피력하여 고대성왕의 公心 우선의 태도를 찬미하여 현재 楚俗과 變革에 장애가 되는 舊귀족 집단의 ‘心治’에 대한 반대와 신흥역량에 대한 갈망을 言外에 함축시키고 있다.

3. 貞女的 丹心으로 접근한 君臣우합

그러나 제3단계로 오면 다시 2차 영신의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서 국면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실의가 반복이 되는 복잡한 정서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주로 주무가 직접 그의 근육의 힘으로써 영신의 노정에 포진되어있는 장애를 뚫고 나가는 정녀적 단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시를 보면:

- |                |  |
|----------------|--|
| 19. 桂擢兮蘭榭,     | 계수나무 상앗대와 蘭木으로 만든 노를 가지고,              |
| 20. 斲冰兮積雪;     | 쌓인 눈 더미를 헤치고 얼음장을 부수면서 앞으로 나가네.        |
| 21. 采薜荔兮水中,    | 상군을 영접함이 마치 물속에서 벽려를 채취하고자 하는듯하고,      |
| 22. 攀芙蓉兮木末;    | 나뭇가지 끝에 올라가서 연꽃을 채취하고자 하는 것과 같도다.      |
| 23. 心不同兮媒勞,    | 두 사람의 마음이 어긋나면 필시 매자만 헛고생할 것이고,        |
| 24. 恩不甚兮輕絕;    | 피차간의 은애함이 깊지 않으면 필히 가벼운 말 한 마디로 헤어질지니. |
| 25. 石瀨兮淺淺,     | 돌 여울의 세찬 급물살 위를,                       |
| 26. 飛龍兮翩翩;     | 비룡선을 타고 경쾌하게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네.              |
| 27. 交不忠兮怨長,    | 사랑을 충심으로 하지 않으면 원망이 깊고도 끝이 없거늘,        |
| 28. 期不信兮告余以不閑; | 신의는 지키지 않고 내게 시간이 없다고만 말하네.            |
| 29. 朝馳騫兮江臯,    | 아침이면 강안으로 달려 나가고,                      |
| 30. 夕弭節兮北渚;    | 저녁이면 수레를 멈추고 (만나기로 약속된)北쪽 沙洲에서 쉰다.     |
| 31. 鳥次兮屋上,     | 새들은 지붕위에 깃을 치고,                        |
| 32. 水周兮堂下;     | 江水는 堂下를 맴돈다.                           |

보다시피 본 단계에서는 주무가 직접 그의 상군을 향한 일편단심을 행동으로써 드러내고 있다. 즉 19, 20구에서 주무는 2단계에서의 실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온 몸으로 영신의 노정을 돌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영신하고자하는 뱃길마저 뚫고 얼어붙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 위에 눈까지 내려서 쌓여있다. 사실 이미 배를 저어나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주무는 영신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芳香과 견고함을 동시에 구비한 桂木과 蘭木으로써 만든 ‘桂擢’와 ‘蘭榘’를 가지고 얼음을 깨뜨리면서 뱃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sup>41)</sup> 여기서 특히 ‘난목으로 만든 노’의 物性은 아무리 껍질을 제거해도 죽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주무의 영신 의지 속에는 바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도 즉 ‘變法’에 의거한 정치방책을 함축시키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그러나 21, 22구에서 내뱃는 주무의 사설을 보면, 주무의 내심은 의지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상군과 주무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현실의 담장(氷과 積雪)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계수나무’와 ‘난목’이 그 방향과 견고성이 탁월하다고 해도 이 벽을 깨뜨려서 그의 방향을 전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무는 자신의 영신행위가 마치 ‘물 속에서 벽려를 취하고자 하는 듯, 나뭇가지 끝에 올라가서 연꽃을 채취하고자 하는 듯’(21, 22구) 현재의 자신의 노력이 대단히 무모한 일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sup>42)</sup> 여기서 주무는 저 혼자 단독으로는

41) <九章·惜往日>에도 유사한 경계가 보인다:

乘汜淪以下流兮, 뗏목에 타고 물길을 따라서 遠航을 하고 싶으나,  
 无舟楫而自備. 자신은 정작 또한 배를 저어갈 노를 준비하지 못했다.  
 背法度而心洽兮, 법도를 어기고 私的인 의지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辟與此其无異. 곧 이상의 정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기서 시인은 ‘배를 저어갈 노’, 로써, 법도에 의거하는 정치실천을 비유하고 있다.

42) 여기서 주무가 제기한 ‘벽려와 ‘芙蓉’은 <思美人>에서도 보이는데 시적경계가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벽려로써 매자를 삼고 싶어도 나무에 올라가서 채취하기가 두렵고, 부용으로 매파를 삼고 싶어도 옷을 건어 올려 발을 물에 적시기

자립할 수 없는 ‘벽려’의 寄生性을 통해, 군君과 신臣의 상생관계를 암시했고, 芙蓉은 ‘夫容’을 의미하는 쌍관 표현수법으로 애신의 모습(군왕의 용안)까지 확대 연상시키게 하여, 현재의 주무가 상군을 만나기는 거의 절망에 가까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서 마침내 주무는 하나의 깨달음에 이르고 있다. 즉 매자가 아무리 가운데서 쌍방을 맺어줄려고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쌍방의 마음이 추구하는 기준이나 법도가 ‘同一’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은애하는 바가 깊지 못하면, 가벼운 말 한마디로도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세속상의 원리(현재 초국의 정치)를 깨우치면서(23, 24구)<sup>43)</sup> 다시 심기일전을 기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25, 26구에 와서는 세찬 물살(淺淺) 위를 경쾌하게(翩翩) 비룡선을 타고 다시 동정호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시 또 “신의’도 지키지 않고 시간만 없다.”(期不信兮告余以不閑)고하는 ‘상군’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지만(27, 28구)<sup>44)</sup> 여전히 주무는 다시 또 심기일전

가 두렵도다.”(令薜荔以爲理兮, 因芙蓉而爲媒兮.)라고 읊어 言外之意를 담고 있다. 즉 벽려는 수목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이를 채취하려면 반드시 나무에 올라가야 하고; 연꽃은 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발을 물 속에 넣어야 손에 넣을 수 있건만, 사실 ‘나무 위’와 ‘물 속’이라는 대상을 쉽사리 접근할 수 없다는 내심을 言外에 함축시켜 ‘군신우합’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43) 이와 유사한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굴원의 작품에 자주 보인다. 이를 테면, <이소>: “원망스럽게도 主君은 흐리멍텅하시어, 끝내 나의 심정을 살피지 않으셨다네.”(怨靈修之浩蕩兮, 終不察夫民心.) <九章·惜往日>: “군왕이 무슨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도 없고 백성을 분명하게 살피지도 않음에, 결국은 향초가 잡초에게 묻히고 말았도다.”(君无度而弗察兮, 使芳草爲藪幽.) 등의 표현은 바로 굴원이 섬기고 있는 主君의 불민함으로 만민의 선악지심을 살피지 못해, 상호간에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군신우합이 깨어지고 국가는 위기에 처하여, 충신은 배척되는 경우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44) 이와 같은 내용이 《사기·굴원가생열전》에 “회왕이 깊이 신임했다.”(王甚任之.)로부터 “노하여 그를 멀리했다.”(王怒而疏.)에서 보일 뿐 아니라, <이소>에서도 보인다:

初既與余成言兮, 그대께서 당초에는 나와 약속도 하셨는데,  
後悔遁而有他. 지금은 별도의 속셈이 있으신가 다시 처음 하셨던 말씀을 바꾸셨네.

라는 詠嘆 속에도 보인다.

하여, 아침이 오면 강변으로 달려 나가서 그의 행차를 기다리고, 저녁이 되면 그와의 약속 장소인 북쪽 강변에 있는 ‘沙洲’로 와서 피곤한 몸을 쉬는 ‘丹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29, 30구) 그러나 그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쓸쓸하기 짝이 없다. 주무의 영신소식을 전달하러 갔어야 할, 새들은 모두 지붕위에 깃을 친 채 앉아있고, 가옥 아래에는 동정호 쪽으로 흘러가서 주무의 애타는 소식을 전달해주어야 할 ‘강물’이 또한 ‘堂下’ 주위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3단계의 정황은 주무가 주변의 그 어떤 매자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로지 홀로 신무교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 쏟아내고 있다. 이를 테면, 강물이 얼어붙고 그 위를 눈이 내려서 쌓여도 다시 최상의 목질을 지닌 ‘桂木’과 ‘蘭木’으로 상앗대와 노를 만들어서 이를 헤치고 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보일 뿐 아니라, “신의를 지키지 않고 시간만 없다.”(期不信兮告余以不閑.)고 하는 상군의 변덕스러운 태도에도 뜻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아침이 오면 영신의 행위를 계속하고, 밤이 되면 다시 그와의 약속장소로 돌아오는 일편단심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주무의 이러한 貞女的 일편단심은 흡사 세속의 남녀지간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서, 이는 바로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자신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신하로서 주군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군신우합’의 정치도식과 동일시된다. 이는 곧 <이소>에서 “어찌 이 몸에게 내리는 재앙을 두려워 하겠는가”(豈余身之憚殃兮.), “내가 걱정하는 것은 조국이 이로 인해 전복되는 것이로다.”(恐皇輿之敗績.)라는 경계를 상기하게 한다. 말하자면, 본 단계에서 부각시킨 신무교접의 심층구조는 상군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상군을 향해 끊임없이 丹心을 피력하여, ‘신무교접’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길만이 주무(굴원)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구조는 바로 ‘군신우합’의 정치도식과 동일시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굴원의 정치이상은 첫째가 법치를 통한 강국을 만드는 것이요; 둘째는 성군과 현신이 동일한 기준과 법도를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요; 셋째는 군왕이 총명하여 봉당

을 금지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상벌을 내리는 것이오; 넷째는 인민을 평시에는 농사에 힘쓰도록 하고, 전시엔 전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오; 다섯 번째는 인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굴원은 바로 그의 이러한 정치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신우합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본 단계에서 보여준 주무의 정녀적 단심을 발휘한 신무교접의 유형은 그대로 굴원이 당시 현실에서 그의 미정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군신우합’을 갈망했던 그의 정치도식을 그대로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굴원이 주군으로부터는 불신임을 받고 기존의 귀족층으로부터는 견제와 모략을 당하면서도, 초국에 그의 미정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애국의지만은 결코 방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4. 靈巫儀式으로 접근한 군신우합

이제 우리는 위의 3개 단계와 지금 이 마지막 제4단계의 신무교접 방식을 가지고 그 차이성을 잠시 이해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먼저 지금까지의 3개 단계에서의 신무교접 방식은 사실 정중한 請神祭儀를 거치지 않고 주무는 그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곧장 迎神의 노정에 올랐다가 온갖 시련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는 아마도 전날에 애신과 쌓아둔 신뢰와 情誼를 믿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sup>45)</sup> 그러나 막상 그가 직면

45) 《사기·굴원가생열전》: “조정에서는 국왕과 국가대사를 토론하고, 政令을 제정했으며; 對外的으로는 빈객을 접대하며, 제후국과 관련한 事務를 처리하였다. 초희왕은 그를 심분 신임했다.”(入則與王圖議國事, 以出號令; 出則接遇賓客, 應對諸侯. 王甚任之.)

<이소>:

初既與余成言兮, 그대께서 당초에는 나와 약속도 하셨는데,  
後悔遁而有他. 지금은 별도의 속셈이 있으신가 다시 처음 하셨던 말씀을 바꾸셨네.

<惜往日>:

秘密使之載心兮, 나는 국가의 기밀을 마음 속에 넣어 두었고,

한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영신은 상군의 외면으로 인해 번번히 실패로 끝났고, 게다가 영신하는 뱃길마저 뚝뚝 얼어붙었으며, 그 위에 눈까지 내렸을 뿐 아니라, 전령사로 상징되는 ‘새’와 ‘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주변 현실의 외면까지 경험했다.

그러자 그는 4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상군에 대한 자신의 현재 입장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애신을 향해 정중하게 정식으로 청신의 의식에 상당하는 헌제와 증여로써 상군과 소통코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請神儀式을 갖추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상군에게 선물로 받았던 ‘옥결’을 강물에 헌제하고 있는 것이다.<sup>46)</sup> 그러나 다시 마음 한 쪽으로는 분노의 감정이 끓어 올라 ‘옥패’는 예포의 강설에 던져버림으로서(33,34구). 내심의 갈등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또 마음을 수습하고는 芳洲로 가서 杜若를 채취하여, 그의 상군의 시녀에게 전달하고자 생각을 바꾸고 있다. 이는 당시 초속에서 남녀지간에 마음이 통했을 경우에, 상대방

雖過失而不治. 설령 과실이 있다해도 군왕께서 추궁하지 않았네.

46) 楊采華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儀式 행위, 즉 강물 속에 식물이나 옥패를 던지는 것을 두고 水神이 굴원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라든가 혹은 굴원을 弔問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사실 상 이는 湘·沅의 두 강줄기 유역과 낙후한 夷·越地區의 百濮부락에서 내려 온 영무의식의 하나라는 것이다. 漁業을 생계로 하여 물과 배에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애정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성을 갈망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물과 배 사이에서 표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물 속으로 헌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행위가 그들 생활 속의 정신적인 支柱와 정신을 기탁하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여 상군과 상부인은 남방이월지역의 신이 되었는데, 초나라 문화가 이 湘·沅유역을 침투해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도 상군과 상부인에 대한 百濮 부락 인민들의 마음 속에서의 지위란, 마치 오늘 날의 福建海峽 兩岸에서 존중받는 ‘媽祖’와 같은 위치였을 것이라고 추리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굴원이 湘·沅유역에 추방되어 이 일대 지역 내에서 상군·상부인과 관련이 있는 제사활동을 목도하고 이 제신곡의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내용을 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굴원이후로 다시는 순수하게 상군과 상부인을 제사지내는 악곡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는데 일리 있는 추리라고 생각된다.(楊采華 著 《屈原及其辭賦新解》 pp.215-216 참조)

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儀式의 하나이다.<sup>47)</sup> 지금 여기서는 주무의 의사를 직접 상군에게 전달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의 시녀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무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혼잣말로 “그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터이니, 잠시라도 더 가슴을 열고 소요하면서 기다려보리라.”라는 애뜻한 情感語를 중얼대는데 이는 본 텍스트의 주제어인 ‘군신우합’에 대한 미련을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경계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본 단계의 예시를 보면:

- 33. 捐余玦兮江中, 나는 玉玦을 강 속으로 獻祭하고나서는,
- 34. 遺余佩兮醴浦; 옥패는 예포의 강변에 던져버리고 말았네.
- 35. 采芳洲兮杜若, (그러나 다시 또)芳洲로 가서 두약을 채취하여,
- 36. 將以遺兮下女; 시녀에게 보내려고 하네.
- 37. 時不可兮再得, 그이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듯하여,
- 38. 聊逍遙兮容與. 잠시라도 가슴을 열고 소요하면서 기다려보고자 하네.

방금 언급한 이 두 가지의 청신제의는 모두 남녀지간의 상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請神儀式이다. 그렇다면, 이 청신의식은 어떻게 군신우합의 정치도식과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논지전개에서 보듯이 이 兩者의 청신의식은 신무지간의 교접을 남녀상열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신무의 관계는 영무 문화권에서는 바로 군신의 관계와 동일시 된다는 것도 이미 장황하게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본 단계에서 행하고 있는 주무의 이러한 儀式은 곧 무관인 주무가 군왕인 靈修에게 또는 신하인 주무가 영수인 군왕에게 소통의 염원을 기원하는 군신우합의 정치도식으로 도출해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아진다.

시인 굴원은 자신의 정치생애에서 주군으로부터는 신뢰를 잃고, 주변의 동료들로 부터는 질시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의

47) 주석 34) 참조바람.

혁신이 좌초하게 되었다. 고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대정치에서 보이는 군신우합의 정치유형을 자신의 현실에서 재현시키고자 안간힘을 써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생존했던 시대는 초국이 쇠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변혁이 용납될 리 없었다. 그리하여 그 역시 선현 오기나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변법가 상앙의 경우처럼 고립무원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하여서 본 텍스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한 청신의 제의는 역설적으로 굴원과 주군과의 사적인 거리가 무너짐으로서 그의 변법을 지지해주었던 주군의 初心을 공적인 祭儀로서라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고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텍스트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가 추구하는 군신우합(신무상통)의 길은 실로 멀고도 요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영신과정의 험난한 노정을 통하여 드러냄으로써, 초국의 현실은 ‘군신우합’의 실패로 인해, 쇠망할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언외에 기탁하고자 한 듯하다.

#### I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굴원이 <상군>이라는 제신곡의 형식을 빌려 그의 정치생애에서 염원했던 ‘군신우합’에 대한 열망을 주무의 자서적 시점에서 영신과정이라는 일련의 환상적 사건을 통해, 함축시키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텍스트에서 드러난 표층구조는 주무의 신무교접을 위한 접근방식의 부각이었으나, 사실 이의 심층구조는 ‘군신불우’의 비극적인 정치도식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럼 위의 거론에서 도출된 결과를 다시 요약 정리하여 본고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남녀상련의 방식으로 표현한 주무의 신무교접을 ‘군신우합’이라는

세속적인 정치도식과 동일시 한 것은 초국을 무사 문화의 권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고의 텍스트인 <상군>에서 주무의 상군을 향한 상통의 염원을 종교의식의 분장 상에서 보면, 주무는 人臣으로서 巫官에 상당하고, 상군은 ‘人君’으로서 靈修에 상당한다. 뿐만 아니라, 女巫가 주무로 분장하면서 신무를 異性の 관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자연히 군신의 관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신무와 군신의 관계를 남녀간의 친밀도로써 표현함에 대한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본 텍스트에서 도출한 군신우합의 불여의한 정치도식이, 서정 주인공의 ‘유정함’과 상대방의 ‘無情함’이라는 대립구도로 드러났는데 이는 당시 초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연상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주무가 신무교접에 향초를 매개로 접근하는 것을 군신우합의 정치도식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은 바로 초속과 영무 문화를 同構現象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제정일치에 근거하면, 신무는 군신과 일치되고, 동시에 본 텍스트에서 신무는 異性の 관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군신의 관계 역시 남녀의 관계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초속에서 남녀지간의 상열에서나 혼사에서, 향초를 통해, 상대방이 애정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행복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하듯이 본 텍스트에서도 이를 그대로 영신선에 적용하여 신무지간의 소통을 열망하는 것으로 암시하였다. 아울러 이의 심층구조로 동일시한 군신우합의 정치도식 역시 시인 굴원이 향초의 주술력을 매개로 군신지간의 소통을 염원하는 애절한 심리의 면면을 구상화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美政理想의 실현에는 군신우합의 승패가 좌우한다는 그의 인식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었다.

셋째, 주무는 2차 영신을 통해, 신무교접의 승패는 媒者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무쌍방이 추구하는바가 동일하지 않거나 은애하는 마음이 깊지 않음에 좌우된다는 보다 본질적인 자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무는 眞女의 일편단심으로 신무지간의 소통을 위해 주무의 열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 필자는 여기서 신무지간의 심층구조로 간주되는 군신우합의 승패원인과 동시에 그 목적까지 모두 헤아려 보았다. 즉 굴원은 그

가 모시던 主上과의 소원한 관계에 대한 해결이나 또한 그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정치의 각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왕과 관계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sup>48)</sup> 그는 본 단계에서 마지막에 되는 험난한 영신의 노정을 극복하기 위해 정녀적 단심을 가지고 포기하면 죽음뿐이고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비분과 회한을 <상군>이라는 제신곡을 빌려 표현하였다고 보았다.

넷째, 주무는 그동안 애신과 쌓아온 사랑과 신뢰의 깊이를 믿고, 청신제 의라는 儀式 절차를 무시한 채 곧장 바로 영신의 노정에 올랐었는데 참담한 외면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상군과의 현실온도를 체감한 나머지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시 초속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청신제의 즉 헌제와 증여의 방식을 통해, 상군과의 소통을 정식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애신

48) <이소>:

湯禹儼而祗敬兮, 周論道而莫差. 舉賢而授能兮, 循繩墨而不頗. ..... 說操築于傅岩兮, 武丁用而不疑. 呂望之鼓刀兮, 遭周文而得舉. 寧戚之謳歌兮, 齊桓聞以該輔. <惜往日>: 聞百里之爲虜兮, 伊尹烹于庖廚. 呂望鼓于朝歌兮, 寧戚歌而飯牛. 不逢湯武與桓繆兮, 世孰云而知之?	탕왕 우왕께서는 태도가 엄숙하시고 (어진이를)공경하셨고, 문왕께서는 도리를 논하심에 약간의 과오도 없으셨네. 그들은 모두 어진 이를 기용하시고 능한 자에게 政事를 맡기셨으며, 일정한 법도를 좇음에 본모습을 잃지 않으셨네.(약간의 편차도 없었네) ..... 부열이 부암에서 판축을 가지고 담 쌓는 일을 하였는데, 무정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를 재상에 등용하였네. 여망은 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의 문왕을 만나 太師로 기용되었다네. 영척은 소에게 사료를 주고 우각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齊의 桓公이 그 노래를 듣고 난후 대부에 임용하였네. ..... 듣자하니 백리해는 일찍이 쫓의 포로가 된 적이 있었고, 이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뛰어났다고 하네. 여망은 朝歌에서 백정을 한 적이 있었고, 영척은 야간에 소에게 사료를 주다가 노래로써 자신의 懷才不遇를 하소연 했었다네. ..... 商의 湯, 周의 武王, 齊의 桓公, 秦의 穆公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 누구인들 그들의 장점을 알 수 있었을까?
---	--

상군과의 심리적 거리를 의식한 靈巫儀式으로서 주무의 소통에 대한 염원을 또 다른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초국이 祭政 일치의 국가임을 전제하여, 4단계의 ‘靈巫儀式’을 굴원이 추구하는 군신우합의 또 다른 하나의 정치유형으로 동일시하였다. 왜냐하면, 주무의 이러한 단념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소통의 시도는 바로 굴원이 그의 정치 현실, 즉 주군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동시에 조정의 증신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상황을 만회하여 그가 추구하는 정치이상을 실현시켜보고자 하는 것과 동일구조의 현상으로 보았다. 재언하면, 굴원 역시 주무와 같은 심정으로 현재로써 ‘娛神(娛君)’하고 증여로써 ‘悅神(悅君)’하게 하여 반드시 군신우합을 성취시켜야 한다는 내심을 여기 영무의식 속에 함축시켰다고 보았다.

요컨대, 본 텍스트의 전체 구조는 층위의 이원구조, 즉 주무를 1인칭 화자 시점으로 하는 신무소통의 표층구조와 시인 굴원을 1인칭 화자시점으로 한 ‘군신우합’의 정치도식이라는 심층구조를 裏面으로하는 이원적 구성을 보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심층의 층위에 속하는 그의 정치도식이 자기 자신을 ‘貞臣’의 각도에 고정시켜놓고 또한 자아도덕의 修身 속에 정지시켜 놓아서, 군신관계가 시대와 함께 하는 思考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왜냐하면, 굴원이 생존했던 전국시대 中·晚 시기는 ‘臣’을 군왕의 우위에 두는 道·勢가 相爭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 < 參考文獻 >

王逸, 《楚辭章句》(商務印書館, 1937.)

49) 《呂氏春秋·察賢》: “공명을 세움도 또한 그러하였다. 중요한 점은 현인을 만나는데 있으니, 위문후는 자하를 스승으로 상대했고, 전자방은 벗으로 상대했으며, 단간목은 예를 갖추어 상대했다. 그러자 자연히 나라는 다스려지면서도 그들 자신은 한가하였다.”(立功名亦然, 要在得賢. 魏文侯師卜子夏, 友田子方, 禮段干木, 國治身逸)

- 洪興祖,《楚辭補注》(臺北:藝文印書館),1981.  
朱熹,《楚辭集注》(臺北:華正書局),1974.  
蔣驥,《山帶閣注楚辭》(臺北:長安出版社),1989.  
黃壽祺·梅桐生 譯注,《楚辭全譯》(貴陽:貴州人民出版社),1984.  
楊采華,《屈原及其辭賦新解》(武昌:武漢大學出版社),1994.  
司馬遷,《史記》(西安:三秦出版社,1988 )  
戴望 著,《諸子集成》(中華書局,1954年)  
荀况 著 蔣南華 외2인 注譯,《荀子》(貴州:貴州人民出版社,1995年)  
《商君書全譯》(貴州:貴州人民,1993年)  
《十三經注疏·春秋左傳正義》(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年)  
楊家駱 主編,《漢書·地理志》(臺北:鼎文書局,중화민국 72년)  
桓譚,《新論》《太平御覽》 권735(河北教育)  
清·乾隆19년 宗陸堂刻本の 《荊門州志》  
熊良智 著《楚文化研究》(成都:巴蜀書社,2002)  
拙稿,《<湘君>과 <湘夫人>을 통해 본 巫의世界》《中國語文學》 제50집  
孫作雲,《九歌山鬼考》《清華學報》 제11권 4기,1935년  
聞一多,《高禘郊社祖廟通考跋》《清華學報》 12권3期  
潘富俊 著,《楚辭植物圖鑒》(上海:上海書店出版社,2003年)

### < 中文提要 >

在祭神曲《湘君》中,屈原以主巫自述一系列迎神過程的幻想形式展示了他“君臣遇合”的政治理想。一般認為,表面上《湘君》雖然是渴望與湘君交流的祭神曲,但實際上是屈原用以表達“君臣遇合”理想的一幅圖政治圖式。我們可以將其分爲四個部分予以概括。

第一部分詩人將巫與神的交涉描寫爲男女相戀。由此我們不僅可以看出與君臣遇合形式相通的楚國的靈巫文化,還可以看出屈原爲實現其美政理想而付

出的努力。

第二部分作為巫與神的第二次嘗試，描寫了主巫憑藉香草的愛情巫術祈禱巫與神的交涉。這不僅符合男女相戀的模式，而且適用於君臣遇合的政治形勢，這也反映了詩人憂心君臣遇合的內心世界。

第三部分描寫的是黨香草也失去巫術作用時主巫拼盡全力憑藉女貞的一片丹心克服迎神旅程中的一切險阻的過程。這象徵了賢臣與聖君謀求“遇合”的過程，表現出詩人積極地追求其美政理想的意志。

在第四部分中，黨巫與神交涉的一切嘗試都失敗后，主巫將禮儀與誠意儀式化，企圖憑藉類似于請神儀式的靈巫儀式來滿足愛神，以達到與神溝通的目的。這種神與巫交涉的方式作為巫文化的特點之一是君臣遇合的另一種政治形式。

從屈原將追求君臣(神與巫)之間相互溝通的方式由個人行轉變為普遍儀式的過程我們可以看出他對君臣遇合的執著。這不僅表現了屈原對其美政理想的自信，同時也說明了詩人將自己定位為“貞臣”並嚮往周天子時代在自我修身中盡忠的君臣關係。

주제어 : 迎神, 男女相戀, 神巫交接, 香草, 靈巫儀式, 君臣遇合, 美政理想